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 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1946년 3월 창간 제 2735호 E-mail : ihonam@naver.com 2019년 7월 1일 (음력 5월 29일) 월요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상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북미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나서고 있다.

장흥군, 농어민수당 도입…年60만원 12월 첫 지급

장흥군은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 도입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장흥군은 최근 농어민수당 도입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비농업인단체를 포함, 농어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농어민수당 도입 및 지급에 따른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근 확정했다.

농어민수당 60만원은 장흥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농·축·어·임업인이다.

올해 12월 하반기분 30만원을 첫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학교 급식·돌봄 '차질'

오늘 총파업 선언…3일부터 사흘이상 파업

빵-우유 대체 급식·돌봄교사 수급 우려도

광주·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월 3~5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 학교 급식과 돌봄에 차질과 혼란이 우려된다.

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일 총파업 돌입 선포식을 갖고, 최장 3일 이상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실질 파업은 3일부터 돌입하고, 2일까지는 상경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현재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등 28개 직종에 3000여 명이 학교 비정규직노조에 가입돼 있다. 공무직, 여성노조 소속까지 합하면 50여 직종에 4000여 명에 이른다.전남에서는 32개 직종에 5500여명이 학교 비정규직노조에 가입돼 있고, 공무직과 여성노조 소속까지 합하면 108개 직종에 7500여 명에 이른다.

국·공립학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광주에서는 78.5%의 투표율에 89.4%의 찬성률을 보였고, 전남에서는 77.1%가 투표한 가운데 85.9%가 찬성표를 던졌다.

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3일로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 총파업에 적극 동참, 사흘 이상 공동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에서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2017년에 이어 2년만이다.

연대회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50%를 차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 불리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또 "지난 4월초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시간끌기식 교섭 회피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고 중앙노동위 쟁의조정을 거쳐 지난 19일 파업을 비롯한 쟁의권을 노조가 확보했음에도 이후 진행된 교섭에서 시·도교육청은 2018년 임금으로 사실상 동결안을 제시, 결국 교섭 결렬로 총파업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비상근무에 나섰다. 특히, 급식과 돌봄이 최대 걱정거리다.

시·도 교육청은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직종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파업으로 학교급식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체 급식이나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교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상 급식 대신 빵이나 우유 등으로 끼니를 부실하게 떼울 수 밖에 없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과 도시락 미지참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요구되고 장마철 대체급식에 따른 식중독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울러 특수교육과 돌봄교실을 포함,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특수교사와 교직원 등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해 학교별 자체 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나 내부인력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등 인력수급에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7월2일 각급 학교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공백 최소화와 부당노동행위 사례 설명과 행정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지난달 29일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인근 옹벽 공사장에서 옹벽이 붕괴돼 차량 7대(추정)가 매몰, 소방당국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맛비 지나간 전남 곳곳서 피해 잇따라

주말인 지난달 29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공사현장의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도로로 흘러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1분께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옹벽이 붕괴돼 차량 7대(추정)가 매몰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오후 6시20분께 고흥군 동일면 한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1시간 가량 차량이 통행이 제한됐다.

또 고흥 도화면 발포리 한 도로에도 토사와 함께 쓰러진 나무가 흘러내렸다. 고흥군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 도로를 정상화 했다.

같은 날 오후 4시51분께 장흥읍 천관산 인근 한 계곡에서는 A(64) 씨 부부 등 3명이 계곡에 고립돼 119에 의해 구조됐다.

A 씨 일행은 천관산 내 한 사찰을 찾았다 장맛비에 불어난 계곡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26~50㎜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해남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가 일시 침수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8시10분 현재 전남지역 침수 피해 신고는 총 64건이다. 신고 대부분은 일시적 침수 피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9시 기준 강수량은 해남 북일 124.0㎜를 최고로 고흥 도양 122.5㎜, 완도 금일 121.0㎜, 신안 비금 117.0㎜, 고흥 도화 117.0㎜ 등이다.

광주기상청은 "빗길 교통사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봉우 기자